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착한 소비,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와 함께 최근 소비의 한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닝아웃(meaning out)은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념이란 도덕적 용어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결부된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오로지 타인에 대해 물욕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소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독특해 보인다. 신념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을, 또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미닝아웃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닝아웃에 대해서는 소비가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신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을 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지배적 경향까지 보인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시장질서를 수용하는 소비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통찰이 요구되기도 한다.

'소비'에 대한 논의는 보드리야르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따르면 소비는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의 대상이 상품에 내재된 기호에 대한 소비라는 점에서 그는 소비를 일종의 권리로 인식한다. 이 인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소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렇게 본다면 제도상으로 보장된 민주주의는 겉보기에 구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한 개인이 삶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비의 중요성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 행위는 '소비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의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출범한 이후 삶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조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공동체와 직업에서 애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그 대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현대의 소비는 욕망의 표현 내지 자유의 실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일수록 소비를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화된다. 소비사회 안에서 성장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소비에 의한 행복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의 가치를 의심하며, 시간이나 경험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과시를 목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내면의 만족을 위한 경향은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이른바 '소확행'이 그러한 경향 중 하나이다.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하는 미닝아웃과 같은 유형은 소비 자체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적 소비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개선을 돕기도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미닝아웃은 개인적 가치 소비로부터 이타적 가치 소비로의 진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 중에는 가치 소비와 같이 개인의 신념을 기초로 한 행위가 포함되지만 소비 그 자체가 시장의 지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념의 표현은 결국 소비 차원을 넘

을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1.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 유형은 개인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소비가 개인적 차원에서 진정한 신념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③ 기존의 소비 양상과 달리 미닝아웃이 소비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 ④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권리로 간주하고 소비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⑤ 노년 세대들은 청년 세대에 비해 물질적 소비로 인해 얻게 되는 행복의 크기가 크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② 비물질적 요소를 추구하는 행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의 크기가 높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 ③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같은 자기과시적 소비 유형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 ④ 개인적 신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타인이 많아질수록 사회에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 ⑤ 소비를 기반으로 하면서 실행 단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미닝아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미닝아웃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소비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의도하는 바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방식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모든 소비는 이러한 권력에 종속된다. 형식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윤리적 소비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순응하는 소비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 행위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이는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시장의 논리에 맞추어 재편함으로써 체제의 재생산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에게 제공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자유의 감정일 뿐이다. 이 견해에 대해 A와 B는 미닝아웃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A: 모든 소비 행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닝아웃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통치성에 관점에서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 감정은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소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B: 미닝아웃은 결국 시장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장에 더욱 깊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그 선택 자체는 이미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가치 소비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① A는 미닝아웃이 실행 단위가 개인이 아닌 통치성에 의거한 규율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B는 시간과 경험과 같은 요소를 추구하는 소비 행위가 결국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
- ③ A는 B와 마찬가지로 통치성에 의한 지배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가치 소비가 소비 차원을 넘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④ B는 A와 달리 어떤 소비 유형이든 시장의 지배 질서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념에 의거한 소비가 결국 권력 체제의 강화로 귀결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⑤ A와 B는 시장 질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닝아웃이 본질적으로는 개인 단위의 실행과 소비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